

미코바이오메드, 독일 '메디카 2022' 참가...신제품 Veri-Q B16 공개

- ▶ 마그네틱 비드 (Magnetic Bead) 방식으로 DNA, RNA를 추출하는 핵산추출 장비 소개
- ▶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에도 다양한 진단분야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해외 판매망 확장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사 미코바이오메드(214610, 대표이사 김성우)가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2)'에 참가해 신규 분자진단 핵산추출 장비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디카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전세계 3천여개 의료기기 업체에서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마그네틱 비드 (Magnetic Bead Type) 방식의 핵산추출 분자진단 장비인 'Veri-Q B16(베리큐 비16)'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원심력을 이용하여 핵산을 추출해내는 Column 방식과는 달리, Veri-Q B16는 자성 비드의 자력으로 핵산을 세포 용해물과 분리해 높은 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추출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Veri-Q B16은 용해(Lysis), 용출(Elution) 동작 시 온도조절이 가능한 열블록(Heat Block)을 사용해 추출 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또 진단하고자 하는 질병과 검체 타입에 최적화된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 역시 우수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회사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허가를 받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및 결핵 분자진단 키트, 그리고 휴대용 소형 면역진단 리더기(VERI-Q PortyView) 등의 주력 제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인 만큼 당사는 분자, 면역 등 다양한 진단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하며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바이어들과 협업하며 해외 진출 기회를 점차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회사 (주)미코가 전략적 투자를 한 진단 회사들의 연합체인 '미코 바이오 얼라이언스(MiCo Bio Alliance)'와 함께 공동 부스를 운영해 각 회사의 주력 제품을 소개하며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미코 바이오 얼라이언스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트리니티 바이오테크, 스페클립스, 애플로지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국내외 진단업체 연합체와 미코바이오메드 등으로 구성됐다.

MiCo BioMed



<제품명 : Magnetic Bead 방식으로 핵산을 추출하는 미코바이오메드의 Veri-Q B16 / 사진제공 : 미코 바이오메드>